**금호아트홀 서포터즈 <스타카토> 10기 지원서**

|  |  |  |  |
| --- | --- | --- | --- |
| **성 명** | (국문) (영문)  | **성 별** | 남 / 여 |
| **생년월일** |  | **주 소** | 거주하는 시/구까지만 기입 |
| **휴대전화**  |  | **E-Mail** |  |

|  |  |  |  |  |
| --- | --- | --- | --- | --- |
| **학****력** | **재학 시기** | **학교명** | **전공** | **재학여부** |
| *입학년도~ 졸업년도* | *대학원* |  |  |
| *입학년도~ 졸업년도* | *대학교* |  |  |
| *입학년도~ 졸업년도* | *고등학교* |  |  |

|  |  |  |  |
| --- | --- | --- | --- |
| **활****동****사****항** | **활동 기간** | **활동처·기관** | **활동 내용**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개월) |  |  |

|  |  |  |  |
| --- | --- | --- | --- |
| **자****격****증** | **취득일** | **기관**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S****N****S** | **본인 SNS 주소 기입** | **SNS 서포터즈 활동 경험자 포트폴리오 확인용 URL 기입** |
|  | 해당자에 한함 |
|  |  |
|  |  |

|  |  |
| --- | --- |
| **서포터즈 <스타카토>의 실무강의 및 간담회는 월 1회 목요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실무강의 참석 여부가 활동 수료 여부에 반영됩니다. 이점 확인 바랍니다.**  | **확인 □** |

|  |
| --- |
| **자 기 소 개 서***항목별로 총 300자(공백 제외) 내외로 작성* |
| **1. 자기소개 그리고 금호아트홀 서포터즈 <스타카토>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
|  |
| **2. 온라인 서포터즈 또는 대학생 홍보대사 등의 활동 이력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 기술해주세요.****또는 앞으로의 <스타카토> 활동에 있어서 자신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기술해주세요.** |
|  |
| **3.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 콘텐츠(클래식 음악공연, 전시, 축제 등)와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  |
| **4. ‘금호아트홀’ 또는 ‘금호문화재단’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를 적고,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  |
| **모의 과제** *선택사항, 미제출시 불이익 없음* |
| **아래 두 공연 중 1개의 공연 홍보 컨텐츠를 다음 4가지 형식 중 택1 하여 제작해 주세요.**- 글 (사진 포함 최대 A4용지 1페이지 이하 분량) - 이미지 (포스터, 카드 뉴스 등) - 동영상 (최대 1분 분량) - 자유 양식 *\** 홍보 자료 제작에 필요한 소스(이미지, 영상, 정보 등)는 인터넷 상의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제작해 주세요. *\* 제출하신 자료는 <스타카토> 선발을 위한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스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가를 얻거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 **공연 1.****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NET; WORK> 성재창 Trumpet**<NET; WORK> 시리즈는 연결망을 뜻하는 ‘NET’와 작품을 의미하는 ‘WORK’의 합성어로, 연주자가 직접 음악 작품들을 페어링하고 그 사이 숨겨진 음악적 흐름을 찾아 소개하는 스페셜 큐레이션의 무대이다. 시대와 작곡가, 작품을 관통하는 연결고리를 통해 각 연주자들은 직접 공연의 컨셉을 기획하고, 색다른 관점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들려줌으로써 보다 특별한 음악세계를 구축해 선보인다.

|  |  |
| --- | --- |
| **공연일시** | 2024년 9월 12일(목) 저녁 7시 30분 |
| **공연장소** | 금호아트홀 연세 |
| **프로그램** | **제오르제 에네스쿠**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전설**마르셀 비쉬**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주제에 의한 4개의 변주곡**조지프 투린** 플뤼겔호른,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2개의 초상**에릭 네이선** 트럼펫을 위한 장난감 놀이 \*한국초연**조지 거슈윈**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3개의 전주곡**카를 회네** 코넷과 피아노를 위한 슬라브 환상곡**토머스 스티븐스** 네 대의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베네치아의 새로운 카니발- Trumpet 성재창, 김상우, 김평안, 문영원 |

**성재창 Jae Chang Sung, Trumpet**뛰어난 곡 해석과 테크닉, 다채로운 음색의 트럼페터 성재창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하고 스웨덴 말뫼 음악원을 거쳐 독일 뮌헨 국립음대에서 전문연주자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핀란드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부수석을 역임했으며,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관현악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예술의전당, 춘천문화예술회관, 대전 예술의전당, 대구 콘서트하우스, 명동성당, 독일 슈테파누스 성당, 핀란드 리크사홀 등에서 독주회를 가졌으며, 아일랜드 챔버 오케스트라, 독일 로스토크 챔버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수원시향, 인천시향, 서울 바로크 합주단 등과 협연했다. 호칸 하든베르거가 이끄는 현대음악 금관 앙상블 단체인 AERO 금관 앙상블의 일원으로 영국 순회 연주를 가졌고, 현재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음악 단체인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과 현대음악 단체인 팀프 앙상블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공연 2.****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2024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엽편소설: 종을 향하여』****김준형 Piano**젊은 음악가의 음악세계를 심층적으로 소개하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시리즈. 2024년의 주인공은 침착하고도 매서운 몰입감을 선사하며관객들을 단번에 사로잡는 음악가, 피아니스트 김준형이다.『엽편소설』을 주제로한 그의 예술성이 응축된 네 번의 무대는진솔한 이야기가 되어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  |  |
| --- | --- |
| **공연일시** | 2024년 11월 14일(목) 저녁 7시 30분 |
| **공연장소** | 금호아트홀 연세 |
| **프로그램** | **프란츠 리스트**피아노를 위한 종이 울리네, S.238오베르망의 골짜기,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순례의 해 제1년 ‘스위스' 중 제6번, S.160/6잠 못 이루는 밤! 질문과 대답, 피아노를 위한 야상곡, S.203밤의 선율, 피아노를 위한 12개의 초절기교 연습곡 제11번, S.139/11피아노를 위한 헝가리안 랩소디 제11번, a단조, S.244/11꿈 속에서, 피아노를 위한 야상곡, S.207제네바의 종,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순례의 해 제1년 ‘스위스' 중 제9번, S.160/9피아노를 위한 즉흥적 왈츠, S.213피아노를 위한 콘서트 대독주곡, S.176 |

**김준형 Junhyung Kim, Piano**피아니스트 김준형은 2022년 독일 뮌헨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부문 준우승을 차지하며 '차분함과 노련함을 고루 갖춘 음악가'로 찬사를 받았다. 뮌헨 ARD 콩쿠르에서의 특별상과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6위, 오르후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 4위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국제 청중들에게 그의 예술적 재능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틴에이저 콩쿠르, 한국 쇼팽 콩쿠르, 삼익자일러 콩쿠르, 한국 리스트 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목 받았다. 김준형은 2012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했으며, 예원학교를 졸업,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수료하고 서울예고 재학 중 도독하여 뮌헨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는 뮌헨 국립음대 현대음악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2024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엽편소설』을 주제로 한 특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김준형은 2024년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엽편소설』 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엽편소설은 나뭇잎 소설이라고도 부르며, 나뭇잎 위에 쓸 만큼 짧지만 인생의 순간을 포착해 재기와 상상력을 발휘하는 짧은 소설을 뜻한다. 이렇듯 김준형의 예술성을 응축시킨 네 번의 무대는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어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